2020 년 1 월 3 일 "(신년예배) 온전한 사람이 되어"(엡 4:13; 3:14-19)

2021 교회 표어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열매 맺는 성도**", 성구는 엡 4:13 입니다.

엡 4:13 에 담긴 '온전한 사람'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마 5:48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골 1:28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송구영신예배에서는 1:15-19 바울의 기도를 살폈는데, 오늘은 3:14-19 기도를 보겠습니다.

[1] 세가지 주제

1 장에 실린 기도는 구원역사의 각도에서 내용을 담는다면, 3 장 기도는 일상에서 이루어야 할 성숙의 각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 v.16 '...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말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내적 확신에 차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 의협심이 강하여 정의를 쫓는 사람, 한번 말한 것은 철회하지 않는 사람...? 강해 보이죠.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서 성도에게 영광을 목도하도록 허용하시는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1 장에서 보았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압도되어 내 죄성(죄의 탄성)을 죽이고 예수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하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옛 생각, 옛 방식, 옛 안목, 옛 성품을 떠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속사람에 관한 일입니다.

사람의 기질이 원래 고집스럽든, 순하든, 자기 말을 고집하든, 여러 말로 번복하든, 속사람이 강건함은 자신의 옛 것을 벗고 새 성품과 새 안목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성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2) v.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갈 2:20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옛 삶의 유리한 조건과 업적들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 안에서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진심으로 부를 때, 말씀을 펼칠 때, 어려움 속에서 형제 자매가 함께 하여 줄 때 등일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과 임재의 축복이 풍성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3) 18-19 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동기도, 창조를 진행하시는 역사의 과정도,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창조된 우주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일희일비 하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동기도 사랑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어진 존재입니다. 엡 1:4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의 품 안에는 '나'라는 사랑의 존재가 이미 있었고 이 땅에 태어난 후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 사랑을 또한 떠났기 때문에 삶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성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잃은 성경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주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람이 이렇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존재임을 보여주셨으니,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회복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 째 기도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부으시는 사랑에 의지하고 삶을 맡김으로써 그 사랑이 구원 받은 사람의 삶의 여정에서 늘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맺음>

바울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나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된다면 분명히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종종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 년 '온전한 사람'이 되어 열매 맺는 성도님들의 여정에서 주님의 동행의 도우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사도 바울이 무엇을 목적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까?
2. 성경에 나온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기대합니까? 또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